

유아와 아동의 과제특성지각과 친사회적 도덕추론 및 친사회적 의사결정*

Children's Perce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asks,
Prosocial Moral Reasoning, and Prosocial Decision-making

이 옥 경**

Lee, Ok Kyoung

이 순 형***

Lee, Soon Hyung

Abstract

The 120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5- and 9-year-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Children responded to 24 prosocial moral reasoning dilemmas and 8 prosocial decision-making tasks. Mothers' prosocial moral reasoning was assessed with questionnaires. Level of moral reasoning was higher in distant than in close relationships. 5-year-olds in preoperational stage used the complex situational cues in their reasoning, and prosocial moral reasoning of 9-year-olds was positively related to mothers' prosocial moral reasoning in the situation with conditions of distant relationship, low costs, and internal responsibility. Children made more helping decisions in close than in distant relationship situations, low rather than high cost situations, and external rather than internal responsibility situations. 5-year-olds whose mothers were high in level of prosocial moral reasoning were more helpful.

Key Words : 친사회적 도덕추론(prosocial moral reasoning), 친사회적 의사결정(prosocial decision-making), 과제특성지각(perce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asks)

※ 접수 2002년 12월 31일, 채택 2003년 2월 24일

* 이 논문은 2003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연구비 보조를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

**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수연구원, E-mail : invincible50@yahoo.co.kr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I. 서론

수행자의 동기에 관계없이 타인을 이롭게 하는 자발적 행동으로 정의(Eisenberg, 1982)되는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에 미치는 실제적인 의의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발하는 심리적 기제에 관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인지발달적 관점에서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수행에 기본적인 인지과정이 수반되므로 일정수준의 도덕 발달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Bar-Tal, 1982; Eisenberg, 1982; Mussen & Eisenberg, 1977), 여러 연구들에서 성숙한 도덕 판단이 친사회적 행동의 양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였다(Eisenberg, Shell, Lennon, Beller, & Mathy, 1987; Underwood & Moore, 1982).

그러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Eisenberg-Berg & Hand, 1979; Eisenberg et al., 1987; Eisenberg, Miller, Shell, McNally, & Shea, 1991)에서 드러난 두 변수의 관계는 비일관적이다. 이는 추론과 실제 행동이 불일치할 가능성에 기인한다. 실제로 친사회적 행동의 수행에 부담이 클 때 그 상황을 회피하기도 하고(Mussen & Eisenberg, 1977), 덜 성숙한 판단을 할 수도 있다(정현희, 1990). 또한 상황의 부담이 낮은 경우 친사회적 행동이 도덕적 갈등없이 자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Eisenberg & Fabes, 1998). 문제는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판단과 수행에서 수행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들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Eisenberg, 1982).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되어 연구된 상황 요인들은 수혜자와의 관계(최혜선, 1993; Birch & Billman, 1986; Farver & Branstetter, 1994; Howes

& Farver, 1987; Jones, 1985; Berndt, 1981), 과제의 부담(송길연, 1981; 이옥경 · 이순형, 1996; 정현희, 1990; Gross, Wallston & Piliavin, 1975; Piliavin, Piliavin & Rodin, 1975; Weyant, 1978), 상황의 책임소재(Berkowitz, 1969; Ickes & Kidd, 1976; Meyer & Mulherin, 1980; Weiner, 1980)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상황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각각 별개로 고려되었다. 일상생활의 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요인들에 대한 판단이 개별적이기보다는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각각의 요인만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발생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맥락 내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상황 단서들에 따라 아동의 친사회적 판단 및 행동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또한 어떠한 상황단서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에서도 과제상황의 조건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딜레마 상황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부담이 큰 경우 부담이 작은 행동에 비해 욕구충족적인 추론 경향이 더 높고, 타인지향적 추론 경향이 더 낮으며 전체적인 추론 수준이 낮게 나타난 연구 결과(이옥경 · 이순형, 1996; Eisenberg-Berg & Neal, 1981)가 보고되었을 뿐이다. 친사회적 도덕추론은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는 추론이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과는 상황조건의 영향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제상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그 양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의 도덕추론과 가족 · 부모의 관련성에 관하여, Kohlberg(1969)는 가족의 참여나 부모와의 동일시가 아동의 도덕발달에 결정적 필요요소가 아니며 부모의 도덕추론이 아동의 도덕발달단계와 관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인지발달 연구자들은 Kohlberg가 가족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였음을 지적하고 아동의 도덕성에 대한 가족 환경의 한 측면으로 부모의 도덕추론과 양육을 연구하였다(Parikh, 1980; Shoffeitt, 1971; Walker & Taylor, 1991). 아동의 도덕추론은 더 높은 단계의 사고에 노출됨으로써 자극받으며(Berkowitz, Gibbs, & Broughton, 1980; Walker, 1982), 부모의 도덕판단은 아동양육철학 및 행동과 관련되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Powers, 1988)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연구들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 및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도덕추론의 관계에 대해 불일치하는 결과들을 보여왔다(Dunton, 1989; Haan, Langer, & Kohlberg, 1976; Parikh, 1980; Powers, 1983; Shoffeitt, 1971; Walker & Taylor, 1991). 부모와 자녀의 도덕성 간의 관계는 외적 규제가 최소화된 친사회적 갈등 상황일 때 Kohlberg의 도덕추론에서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보듯 친사회적 갈등상황에서의 반응을 결정하는 데에는 인지적 요인, 사회화 요인, 상황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된 행동유형과 관심의 영역이 다름에 따라 서로 독립적인 맥락에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의 요인이 다른 요인들과 관련되어 어떻게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갈등 상황의 특성이 변화할 때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아동의 친사회적 발달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의 친사회적 발달과 어머니의 양육 실제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만 집중되었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양육실제에 선행하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인 어머니의 도덕성과의 관련성을 탐색함으로써 친사회적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머니의 역할을 새로운 측면에서 조명하여 부모교육이나 아동교육 등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측정하는 것은 실제 행동의 수행보다는 타인을 도울지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약속하는 친사회적 의사결정이 유사한 과제를 반복측정하는 본 연구의 성격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의 여러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된 대표적 유형인 돕기(Cho, 1992; Iannotti, 1985)에 국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은 과제의 특성(수혜자와의 관계, 과제의 부담, 상황의 책임소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은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3. 아동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과제의 특성(수혜자와의 관계, 과제의 부담, 상황의 책임소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아동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전조작기의 유아(만5세) 60명, 구체적 조작기의 초등학교 4학년(만9세) 아동 60명과 그 어머니 120명을 등 총 24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시기 아동은 가족이나 학교에서 대인관계가 매우 활발해지며, 유아기를 거쳐 아동중기에 이르면 자아중심성이 감소하면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인지 능력의 발달로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추론 유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어머니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유아기와 아동기의 가정에서 주된 양육자로서 아버지 비해 아동의 일상적인 행동에 보다 많이 관여하고, 아동 발달에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아동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아버지의 직업과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중류층으로 한정하였다.

2. 측정도구

1)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Eisenberg-Berg(1979)가 개발한 친사회적 도덕 갈등 상황 과제들과 Eisenberg와 동료들(1987), 김종경(1991), 정현희(1990), 최윤정(1998) 등이 수정한 과제들을 기초로 연구자가 한국 아동의 생활환경 속에서 현실성을 가지며 여러 상황단서들을 면밀히 고려한 새 과제들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첫번째 과제는 주인공이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다가, 어떤 아이가 자기보다 작은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본 상황을 설정하였으며, 두번째 과제는 주인공이 길을 가다가 개 한 마리가

어떤 아이에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을 본 상황을 설정하였다. 세번째 과제는 감기에 걸린 주인공이 갑자기 내린 소나기를 맞으며 약국에서 약을 사가지고 집으로 뛰어가다가 그 약국을 찾느라고 해매는 아이를 만나게 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과제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과 주인공의 친소관계를 고려하여 같은 반 아이(가까운 관계)인지 모르는 아이인지(먼 관계)로 구분하였고, 주인공이 타인을 도와줌으로써 얼마나 희생해야 하는가에 따라 과제가 주는 부담의 크고 작음을 나누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이 도움을 받을 아이에게 있는지(내적 책임) 또는 불가피한 외적 상황에 있는지(외적 책임)에 따라 책임 소재를 구분하였다. 전체 과제는 <표 1>과 같이 총 8개 상황 24개로 구성되었다. 과제의 주인공은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일치시켜 성차의 영향을 방지하였다. 과제는 박사학위 소지자인 아동학 전공자 5인으로부터 내용 안면 타당도를 검사받아 전원의 의견이 일치한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사 2인과 초등학교 교사 1인에게 검토받았다. 한 상황당 0점-4점까지의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한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0점-96점이 된다.

2) 아동의 친사회적 의사결정

본 연구에서는 선행 과제들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아동의 연령에 적합하면서 어느 정도 희생을 부담하여 판단하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과제를 세가지 상황조건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실제로 일어나는 행동 대신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측정했던 일부 선행 연구들(권민균·정옥분, 1988; 박경

<표 1>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과제의 상황 구성

과제의 특성 상황구분	수혜자와의 관 계	과제의 부 담	상황의 책임소재	과제수
상황1	가까운 관계	작은 부담	내적 책임소재	3
상황2	가까운 관계	작은 부담	외적 책임소재	3
상황3	가까운 관계	큰 부담	내적 책임소재	3
상황4	가까운 관계	큰 부담	외적 책임소재	3
상황5	먼 관계	작은 부담	내적 책임소재	3
상황6	먼 관계	작은 부담	외적 책임소재	3
상황7	먼 관계	큰 부담	내적 책임소재	3
상황8	먼 관계	큰 부담	외적 책임소재	3

원, 1986; 송길연, 1981; 정현희, 1990; Green & Schneider, 1974)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였다. 과제는 책상자를 정리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다른 아동의 일을 대신해서 해 줄 수 있는지를 질문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박사학위소지자인 아동학 전공자 5인과 어린이집 교사 2인 및 초등학교 교사 1인과의 토의를 거쳐서 선정하였다. 친사회적 의사결정 점수는 아동이 정리해 주겠다고 한 책상자의 수로 측정된다. 과제의 상황구성은 <표 1>과 동일하나, 8개 상황에 대해 1개의 과제씩 총 8개의 과제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성인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선행연구(Tietjen, 1986)를 참고로 하여 어머니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첫번째 과제는 주인공의 동네에 장마가 그친 후, 집이 지하층이어서 물이 차고 살림이 거의 다 젖어버린 어떤 엄마가 물을 푸고 살림을 말리고 하는 일을 도와주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두번째 과제는 주인공이 급한 일로 은행마감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바쁘게 은행에 가다가 사람이 넘어져서

잘 견지 못하는 것을 본 상황을 설정하였다. 세번째 과제는 주인공이 어떤 차가 후진하다가 뒤에 세워놓은 자동차를 들이받고 바로 달아나는 것을 창 너머로 목격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모든 과제는 박사과정 이상의 아동학 전공자 5인이 검토하여 합의한 과제를 선정하였다. 과제의 상황구성은 <표 1>에서와 같다.

3. 조사절차

5세 유아와 4학년 아동 각 10명씩, 어머니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을 거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사한 과제의 반복측정효과를 통제하고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난수표를 사용하여 각 과제의 시행순서를 정하였다. 또한 피험자의 절반에게는 친사회적 도덕추론 조사를, 나머지 절반에게는 친사회적 의사결정 조사를 먼저 실시하여 시행순서의 영향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독립된 방에서 아동을 한 명씩 면접하여 상황을 묘사한 그림 카드를 보여주며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갈등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반응을 측정하였다. 친사회적 의사결정도 독립된 방에서 과제 상황을 자연스럽게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아동이 응답하기 전에 직접 책상자에 책을 넣어 보도록 하여 과제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실제로 수행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였다. 연구자나 교사, 또래 등의 사회적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만큼만 응답할 것을 강조하였고, 연구자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 아동이 응답을 종이에 기록하고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서 제출하도록 하였다. 조사가 끝나고 2주일 후에 다시 동일한 기관을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남은 과제를 조사하였다. 아동을 통해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을 묻는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조사시간은 추론 과제가 약 15분-40분, 의사결정 과제는 약 15-30분이었다.

응답의 분석은 아동학 전공자인 2인의 평정자가 하였으며 평정자간의 신뢰도는 어머니의 도덕추론 유형이 .79,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유형이 .80였다. 두 평정자의 평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사된 자료와 녹음 자료를 근거로 합의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에서 기술통계치와 오원변량분석(5-way ANOVA),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변수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날 때 주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t 검증으로 단순주효과(simple main effects) 분석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과제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오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수혜자와의 관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점수는 수혜자와의 관계가 가까운 경우보다는 먼 경우에 더 높았다. 이는 아동이 수혜자와 관계가 멀 때 도와주겠다고 응답한 횟수는 적지만, 더 수준높은 추론유형들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론경향은 <표 3>에서 t 검증을 통해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수혜자와의 관계와 상황의 책임소재 간의 상호작용은 <그림 1>과 같이 내적 책임 상황과 외적 책임 상황 모두 먼 관계일 때 점수가 가까운 관계일 때보다 유의하게 높지만, 내적 책임 상황에서 수혜자와의 관계에 따른 차이($t=-5.86$, $df=478$, $p<.001$)는 외적 책임 상황일 때의 수혜자와의 관계에 따른 차이($t=-2.41$, $df=478$, $p<.05$)보다 크다. 한편, 가까

운 관계일 때는 책임소재 간에 차이가 없지만 먼 관계일 때는 내적 책임일 때 추론 점수가 더 높다($t=2.71$, $df=478$, $p<.01$). 연령별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5세 유아의 경우는 수혜자와의 관계와 상황의 책임소재 간에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9세 아동의 경우는 유의하게 나타났다($F=6.22$, $df=1, 472$, $p<.05$). 따라서 <표 2>에서 나타난 두 상황변수 간의 상호작용은 주로 9세 아동에서 행위의 원인에 대한 고려 유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9세 아동의 경우 4수준 이상의 추론유형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3수준의 유형들 특히 가장 많이 나타나는 추론논리인 행위의 원인에 대한 고려 유형에 따라 추론수준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고려는 가까운 관계에서는 외적 책임일 때 도와주겠다는 결정에 대한 논리로, 먼 관계에서는 내적 책임일 때 도와주지 않겠다는 결정에 대한 논리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9세 아동은 내적 책임 상황일 때 먼

〈표 2〉 과제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점수의 변량분석

변 동 인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연령	51.34	1	51.34	18.49***
성별	3.44	1	3.44	1.14
관계	91.27	1	91.27	32.88***
부담	4.00	1	4.00	1.44
책임소재	3.50	1	3.50	1.26
연령×성별	5.10	1	5.10	1.84
연령×관계	.82	1	.82	.29
성별×관계	.02	1	.02	.01
연령×성별×관계	1.07	1	1.07	.38
연령×부담	.04	1	.04	.01
성별×부담	.04	1	.04	.01
연령×성별×부담	.70	1	.70	.25
관계×부담	2.82	1	2.82	1.02
연령×관계×부담	2.40	1	2.40	.87
성별×관계×부담	.07	1	.07	.02
연령×성별×관계×부담	.02	1	.02	.01
연령×책임소재	11.70	1	11.70	4.22*
성별×책임소재	.70	1	.70	.25
연령×성별×책임소재	5.70	1	5.70	2.06
관계×책임소재	20.42	1	20.42	7.35*
연령×관계×책임소재	2.82	1	2.82	1.02
성별×관계×책임소재	.07	1	.07	.02
연령×성별×관계×책임소재	.27	1	.27	.10
부담×책임소재	1.20	1	1.20	.43
연령×부담×책임소재	.04	1	.04	.01
성별×부담×책임소재	.10	1	.10	.04
연령×성별×부담×책임소재	4.54	1	4.54	1.63
관계×부담×책임소재	1.07	1	1.07	.38
연령×관계×부담×책임소재	.27	1	.27	.10
성별×관계×부담×책임소재	.15	1	.15	.05
연령×성별×관계×부담×책임소재	2.02	1	2.02	.73
오차	2576.27	928	2.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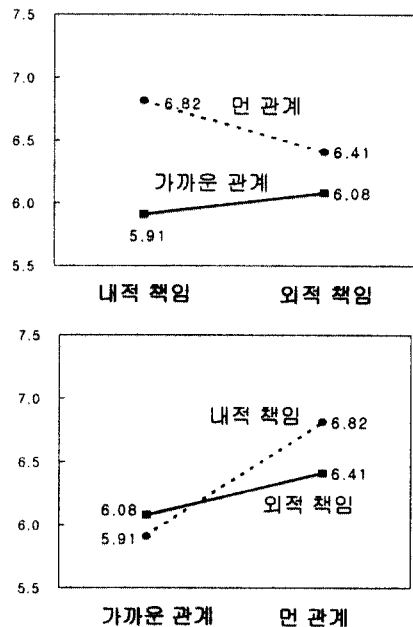
*p<.05 *** p<.001

관계에서보다는 가까운 관계에서 쾌락적 추론을 더 많이 사용한다. 먼 관계에서 쾌락적 추론은 거의 도와주지 않겠다는 결정에 대한 정당화로 사용되나, 가까운 관계에서 쾌락적 추론은 주로 수혜자와의 관계나 보답을 고려하여 도와주겠다는 논리로 사용된다. 가까운 관계의

〈표 3〉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점수에서 단순주효과 검증

상	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내적 책임일 때	가까운 관계	240	5.91	1.75	-5.86***
	먼 관계	240	6.82	1.64	
외적 책임일 때	가까운 관계	240	6.08	1.64	-2.41*
	먼 관계	240	6.41	1.69	
가까운 관계일 때	내적 책임	240	5.91	1.75	-1.10
	외적 책임	240	6.08	1.64	
먼 관계일 때	내적 책임	240	6.82	1.64	2.71**
	외적 책임	240	6.41	1.69	
내적 책임일 때	5세 유아	240	6.25	1.72	-1.51
	9세 아동	240	6.49	1.78	
외적 책임일 때	5세 유아	240	5.90	1.47	-4.58***
	9세 아동	240	6.59	1.79	
5세 유아일 때	내적 책임	240	6.25	1.72	2.34*
	외적 책임	240	5.90	1.47	
9세 아동일 때	내적 책임	240	6.49	1.78	-.61
	외적 책임	240	6.59	1.79	

*p<.05 **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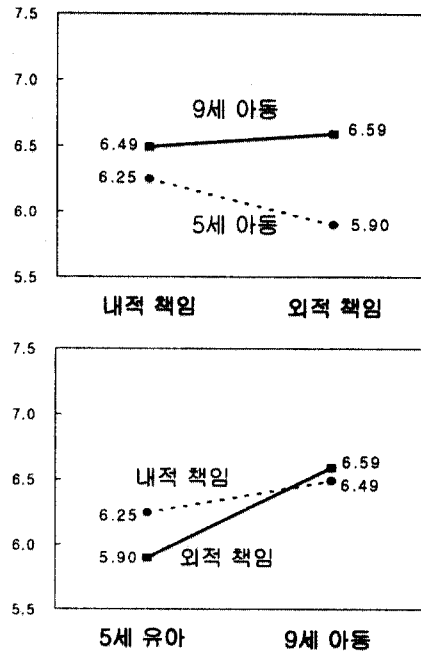
〈그림 1〉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점수에서 관계와 책임소재의 상호작용

내적 책임 상황에서 도와주겠다는 결정을 더 많이 하더라도, 쾌락적 추론과 같이 낮은 수준

의 논리로 정당화한다면 추론점수는 낮아지게 된다. 외적 책임 상황을 보면, 가까운 관계와 먼 관계일 때 쾌락적 추론의 빈도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 이러한 경향은 9세 아동이 가까운 관계인 수혜자가 잘못을 했더라도 수혜자와의 가까운 관계나 그러한 관계에 따른 차후의 보답 기대(쾌락적 추론)를 근거로 들어 돕겠다는 결정을 비교적 많이 내리지만, 먼 관계인 수혜자가 잘못을 했을 때는 시혜자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쾌락적 추론)보다는 그 잘못을 근거로 들어(행위의 원인에 대한 고려) 돕지 않겠다는 결정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내적 책임일 때 가까운 관계와 먼 관계의 추론점수의 차이가 큰 것은 먼 관계에서는 돕지 않는 결정에 대해 행위의 원인에 대한 고려와 같은 수준높은 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가까운 관계에서는 돕는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쾌락적 추론과 같이 상대적으로 수준낮은 유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연령과 상황의 책임소재 간에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표 3>을 보면 내적 책임 상황에서는 5세 유아와 9세 아동 간의 점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외적 책임 상황에서는 5세 유아의 점수가 9세 아동보다 유의하게 낮았다($t=-4.58, df=478, p<.001$). 한편, 5세 유아는 내적 책임 조건에서 추론 점수가 더 높았으나($t=2.34, df=478, p<.05$) 9세 아동의 추론 점수는 상황의 책임소재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그림 2>).

이는 5세 유아의 추론유형 중 세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고려 유형과 관련 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5세 유아는 상황의 책임소재가 내적인 상황에서 돕지 않겠다는 결정을 외적 책임 상황에서보다 많이 하는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잘못했으니까 돕지 않는다’는



(그림 2)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점수에서 연령과 책임소재의 상호작용

행위의 원인에 대한 고려 유형을 주로 사용한다. 이 유형은 내적 책임 상황에서 외적 책임 상황보다 2배 정도 많이 나타난다. 4수준 이상의 추론유형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아에게 있어서 이 유형은 내적 책임 상황의 추론점수를 증가시키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유아는 승인과 인간관계지향적 추론, 공감적 추론 등 수준높은 유형을 내적 책임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5세 유아의 추론점수는 상황의 책임소재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수혜자에게 잘못이 있는 내적 책임조건이 유아들의 도움 결정에 인지적 갈등을 더 크게 유발함으로써 돕거나 돕지 않는 경우 모두 보다 높은 수준의 추론을 많이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9세 아동은 상황의 책임소재에 따라 추론점수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책임소재가 외적인

〈표 4〉 과제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의사결정 점수의 변량분석

변 동 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연령	131.28	1	131.28	15.52***
성별	1.93	1	1.93	.23
관계	383.80	1	383.80	45.37***
부담	169.18	1	169.18	19.99***
책임소재	259.38	1	259.38	30.66***
연령×성별	27.00	1	27.00	3.19
연령×관계	38.00	1	38.00	4.49*
성별×관계	6.18	1	6.18	.73
연령×성별×관계	7.88	1	7.88	.93
연령×부담	.01	1	.01	.00
성별×부담	.18	1	.18	.02
연령×성별×부담	.18	1	.18	.02
관계×부담	11.05	1	11.05	1.31
연령×관계×부담	11.93	1	11.93	1.41
성별×관계×부담	6.18	1	6.18	.73
연령×성별×관계×부담	.76	1	.76	.09
연령×책임소재	231.08	1	231.08	27.32***
성별×책임소재	.05	1	.05	.01
연령×성별×책임소재	19.55	1	19.55	2.31
관계×책임소재	2.93	1	2.93	.35
연령×관계×책임소재	14.75	1	14.75	1.74
성별×관계×책임소재	.46	1	.46	.05
연령×성별×관계×책임소재	.18	1	.18	.02
부담×책임소재	.76	1	.76	.09
연령×부담×책임소재	2.93	1	2.93	.35
성별×부담×책임소재	4.13	1	4.13	.49
연령×성별×부담×책임소재	7.53	1	7.53	.89
관계×부담×책임소재	5.86	1	5.86	.69
연령×관계×부담×책임소재	3.63	1	3.63	.43
성별×관계×부담×책임소재	.13	1	.13	.02
연령×성별×관계×부담×책임소재	.65	1	.65	.08
오차	7850.63	928	8.46	

*p<.05 ***p<.00

상황에서 승인과 인간관계지향적 추론, 공감적 추론, 내재화된 정서적 추론, 추상적 추론 등 보다 수준높은 추론유형들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외적 책임 상황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수혜자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9세 아동의 도와주겠다는 결정이 크게

영향을 받지만, 그 결정을 정당화하는 추론수준에 있어서는 수혜자의 잘못 유무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9세 아동의 경우 일차적으로 도움 결정에 있어서 수혜자의 잘못 유무 같은 현실적인 상황조건이 유아에 비해 중시되지만, 일단 이루어진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돕거나 돕지 않는 논리는 아동 증기의 발달된 인지능력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경향을 종합하면,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상황요인은 수혜자와의 관계임이 드러난다.

2.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관계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5세 유아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9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은 수혜자와 관계가 멀고 과제의 부담이 작으며 상황의 책임소재가 내적인 상황(상황5)에서만 정적 상관을 보였다 ($r=.279, p<.05$). 9세 아동과 어머니의 추론에서 상황5는 8개 상황 중 두 번째로 도움 결정이 적게 나타나는 조건으로 도와주는 심리적 부담이 비교적 높다. 이러한 결과는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추론 수준의 차이가 더 현저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설 2는 기각되었으나, 9세 아동의 결과는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상황조건이 개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과제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의사결정

오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과 같이 세 가지 상황조건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

타났다. 즉, 아동의 친사회적 의사결정 점수는 수혜자와의 관계가 가까운 경우, 과제의 부담이 작은 경우, 그리고 상황의 책임소재가 외적 책임 일 때 더 높았다. 아동들은 세 가지 상황단서가 동일맥락 내에 존재할 때에도 이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하였다. 상황 변수의 영향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연령과 수혜자와의 관계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5>에서 단순주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가까운 관계일 때는 9세 아동의 의사결정 점수가 5세 유아보다 유의하게 더 높으나($t=-3.87, df=478, p<.001$) 먼 관계일 때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 9세 아동의 경우 수혜자와의 관계에 따른 차이($t=6.04, df=478, p<.001$)는 5세 유아의 경우 수혜자와의 관계에 따른 차이($t=3.17, df=478, p<.01$)보다 크게 나타난다(<그림 3>). 이는 9세 아동이 수혜자와의 관계의 친소를 더 민감하게 지각하여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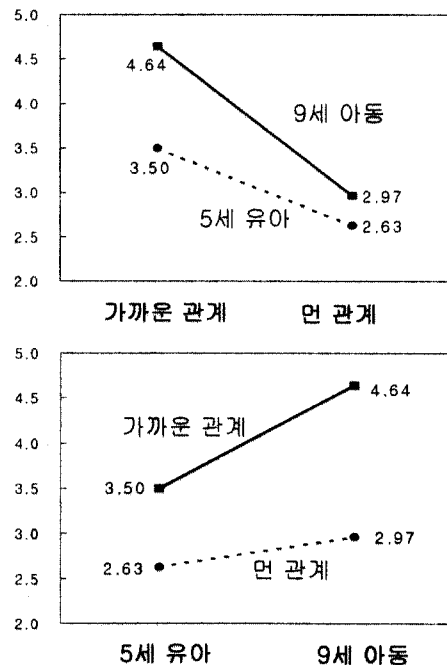
그리고 연령과 상황의 책임소재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5>와 <그림 4>를 보면, 내적 책임 상황에서는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연령간 차이가 없으나, 외적 책임 상황에서는 9세 아동의 의사결정 점수가 5세 유아보다 높다($t=-6.00, df=478, p<.001$). 즉 5세 유아는 상황의 책임소재에 따라 수혜자를 돕는 결정에 차이가 없으나, 9세 아동은 수혜자에게 잘못이 없을 때 돕겠다는 결정이 월등히 많이 나타난다($t=-7.48, df=478, p<.001$). 이는 9세 아동이 상황의 책임소재가 내적인지 외적인지의 여부를 유아에 비해 더 중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아동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수혜자와의 관계나 과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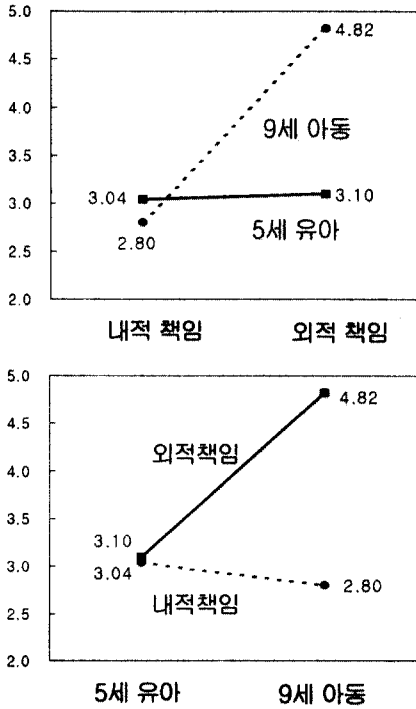
<표 5> 아동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서 단순주효과 검증

상	황	N	평균	표준편차	t값
가까운 관계일 때	5세 유아	240	3.50	3.11	-3.87***
	9세 아동	240	4.64	3.31	
먼 관계일 때	5세 유아	240	2.63	2.87	-1.35
	9세 아동	240	2.97	2.68	
5세 유아일 때	가까운 관계	240	3.50	3.11	3.17**
	먼 관계	240	2.63	2.87	
9세 아동일 때	가까운 관계	240	4.64	3.31	6.04***
	먼 관계	240	2.97	2.68	
내적 책임일 때	5세 유아	240	3.04	2.94	.93
	9세 아동	240	2.80	2.73	
외적 책임일 때	5세 유아	240	3.10	3.11	-6.00***
	9세 아동	240	4.82	3.17	
5세 유아일 때	내적 책임	240	3.04	2.94	-.21
	외적 책임	240	3.10	3.11	
9세 아동일 때	내적 책임	240	2.80	2.73	-7.48***
	외적 책임	240	4.82	3.17	

** $p<.01$ *** $p<.001$



<그림 3> 아동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서 연령과 관계의 상호작용



〈그림 4〉 아동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서 연령과 책임소재의 상호작용

부담, 상황의 책임소재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 조건을 보다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아동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3이 지지되었다.

4.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아동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관계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점수는 <표 6>과 같이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 점수와 정적으로 관련되었다($r=.264, p<.05$).

어머니의 전체 추론과 크게 관련되는 것은 상황1과 상황2에서의 유아의 의사결정이며 상황6에서 유아의 의사결정도 상황4, 상황8에서의 어머니의 추론과 관련성을 보였다. 상황1, 상황2, 상황6은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추론은 도움의 물리적, 심리적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아 친사회적 의사결정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유아의 의사결정과 주로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어머니의 상황8에서의 추론과 유아의 상황2, 상황6에서의 의사결정 간에 관련성이 나타난 것과 상황3의 어머니의 추론과 상황1, 상황2의 유아의 의

〈표 6〉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5세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의 관계

어머니	유아	가 까 움								전체	
		작 음				크					
		내적 상황1	외적 상황2	내적 상황3	외적 상황4	내적 상황5	외적 상황6	내적 상황7	외적 상황8		
가	작음	내적 상황1	.200	.123	.055	-.071	-.170	.220	-.001	.013	.120
		외적 상황2	.142	.234	-.056	-.092	-.010	.243	.171	.187	.206
까	음	내적 상황3	.352**	.314*	.024	.012	.028	.126	-.143	-.006	.194
		외적 상황4	.191	.342**	-.120	-.015	.123	.310*	.075	.158	.269*
움	크	내적 상황5	.174	.194	.149	-.003	.017	.104	.014	.150	.212
		외적 상황6	.088	.029	.161	-.016	-.010	-.091	.202	.132	.120
전	체	내적 상황7	.135	-.005	.214	.048	-.036	.022	-.132	-.049	.063
		외적 상황8	.095	.266*	.048	-.050	.047	.258*	.195	.158	.247
전체			.254*	.279*	.086	-.040	-.002	.243	.091	.148	.264*

* $p<.05$ ** $p<.01$

사결정과 관련을 보인 것은, 비교적 부담이 높은 조건을 감수하고도 수준높은 논리로 도움결정을 정당화하는 어머니를 둔 유아가 그리 크지 않은 어려움에 처한 상대 즉 또래환경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이 도와주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상황4에서의 어머니의 추론이 유아의 상황2와 상황6, 그리고 상황들 전체의 의사결정 점수와 관련된 것은 크지 않은 도덕적 갈등을 수반하는 상황이 어머니의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돕거나 돕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서 도덕적 갈등을 해

결해나가는 패턴이 어머니의 언어나 행동을 통해 유아에게 자주 노출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종합하면,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은 5세 유아가 또래를 돕는 것과 관련되며 특히 큰 비용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돕는 것과 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9세 아동의 친사회적 의사결정 점수는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점수와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어린 연령일수록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4는 5세 유아의 경우에만 지지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선행연구가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이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의 상황적 특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못했음에 주목하여, 수혜자와의 관계, 과제의 부담, 상황의 책임소재 등 과제의 특성이 동일 맥락 내에서 변화할 때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및 친사회적 의사결정과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의 관련성을 밝혀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발달을 고양할 수 있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수준은 과제의 구성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아동의 추론 수준은 수혜자와 관계가 가까운 경우보다는 먼 경우에 더 높았다. 이는 아동이 수혜자와 관

계가 멀 때 도와주겠다고 응답한 횟수는 적지만, 더 수준높은 추론유형들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이 관련된 상황이 아동에게 보다 큰 도덕적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도와주는 논리가 관계를 참조하는 수준을 넘어 도덕적으로 보다 상위에 있는 추론을 자극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상황요인은 수혜자와의 관계였으며, 상황의 책임소재는 아동의 연령이나 수혜자와의 관계 조건과 결부되어 추론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동이 수혜자와의 심리적 거리나 수혜자의 잘못 유무에 따른 도움받을 자격 등 수혜자의 특성을 추론에서 중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동은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추론에서 과제의 부담과 같이 행동의 실제수행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는 조건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5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어머

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은 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9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은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관계가 있었다. 수혜자와 관계가 멀고 과제의 부담이 작으며 책임소재가 내적인 상황에서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수준이 높을수록 9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돕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커서 도움 결정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불리한 조건은 부담이 비교적 낮은 다른 상황들에 비해 추론시 도덕적 고려를 많이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험자들 간의 추론수준의 차이가 더 첨예하고 현저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며, 어머니와 아동의 추론 간의 유사성도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어머니와 아동의 추론의 관계가 상황조건에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 간의 도덕추론에서 일관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주로 청소년기 이후의 자녀에 대해서만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분적인 관련성이 보고된 선행연구들(Dunton, 1989; Parikh, 1980; Powers, 1983; Speicher, 1994; Walker & Taylor, 1991)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본 연구의 대상연령이 유아기와 아동중기로서 선행연구들에 비해 대상연령이 어리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와 자녀의 추론의 관련성이 거의 대부분 청소년기 이상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동의 인지발달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져 다양한 수준의 추론을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사용하는 높은 수준의 추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후에 두 변수 간에 관련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조작기 또는 타율적 도덕 단계의

아동이 부모의 자율적 도덕추론을 이해하기 위한 인지능력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Piaget (1965)나, 아동의 도덕추론 수준이 부모의 수준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유기체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는 인지발달론적 관점(Parikh, 1980)을 고려할 때, 부모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영향과 아동의 연령 간의 관련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른 하나는 부모-자녀간 도덕추론의 관련성을 조사한 모든 선행연구들이 부모와 자녀에게 동일하게 Kohlberg 척도를 사용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동을 각자의 연령과 생활경험에 적절하게 구성된 다른 척도로 측정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Kohlberg의 도덕판단 상황은 규칙이나 법에 근거하고 있어 명료할 수 있는 반면, 친사회적 도덕추론은 명백한 규칙이나 법에 근거하여 규제받는 것이 아니라(Eisenberg-Berg & Hand, 1979)는 점이 다르다. Kohlberg의 도덕판단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들(Dunton, 1989; Parikh, 1980; Powers, 1983; Walker & Taylor, 1991; Speicher, 1994)에서도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아동과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간에 일관되고 분명한 관련성을 기대하기는 조심스럽다.

한편, 부모의 도덕추론은 부모의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부모가 도덕적 문제에 대해 자녀와 함께 실제로 어떻게 추론하는가 즉 부모의 도덕추론 '수행'이 아동의 도덕추론발달에 더 중요할 수 있다(Walker & Taylor, 1991)는 지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수준높은 추론을 사용하는 부모의 능력 자체는 아동이 그와 유사하게 발달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도덕추론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

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Walker와 Taylor(1991)는 부모가 높은 수준의 도덕추론을 제시하면서 아동에게 질문하고 지지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동의 도덕발달을 가장 잘 예측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도덕발달의 기제가 되는 인지적 불평형이 보다 높은 수준의 추론에 노출되거나 인지적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유발된다면 그러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양식을 고려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도덕발달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가상적 상황의 도덕딜레마에서보다는 아동의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실생활의 도덕딜레마에 대한 부모의 추론수준이나 상호작용 양식이라는 Walker와 Taylor(1991)의 보고를 주목할 수 있다. 아동의 친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일상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개인적인 친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모자간의 추론과 상호작용을 탐색할 때 어머니와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간의 관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아동은 수혜자와 관계가 먼 경우보다는 가까운 경우에, 과제의 부담이 큰 경우보다는 작은 경우에, 상황의 책임소재가 내적 책임일 때보다는 외적 책임일 때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하였다. 즉 아동은 실제 수행에서 자신이 지게 되는 물리적,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단서의 활용은 아동의 연령과 관계가 있다. 수혜자와 가까운 관계일 때는 9세 아동이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하지만 먼 관계일 때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가까운 관계에서 도움결정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서

로의 요구에 더 민감하며, 상호의존과 서로 도와 준다는 의무가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가까운 관계에서 크게 나타나는 수혜자와의 유사성에 대한 지각이나 차후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는 상대에 대한 공감을 증가시켜 도움의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Hornstein, 1976; Krebs, 1975). 9세 아동은 수혜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명확하게 지각하고 가까운 관계의 상대를 도와주는 결정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유사성 지각, 차후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 상호의존과 도움에 대한 의무 지각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유아보다 발달되어 있다. 또한 생활환경에서 또래관계의 비중이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우정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며 친구의 요구에 더 민감할 것이다(Berndt, 1981). 따라서 관계의 친소에 보다 민감한 의사결정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5세 유아는 상황의 책임소재에 따라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차이가 없지만 9세 아동은 수혜자에게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하였다. 이는 9세 아동이 유아에 비해 귀인도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발달해 있으므로 전조작기 아동도 도덕 판단에서 의도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나이가 들수록 이를 더 비중있게 사용하기 때문(김시은·정영숙, 2000; Helwig, Hildebrandt, & Turiel, 1995)일 것이다. 도덕발달에 대한 Piaget의 견해에서 전조작기의 아동들이 의도 단서를 활용할 수 없다고 한 점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반박될 수 있지만, 아동이 어릴수록 현저하게 눈에 보이는 단서를 더 중요시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설명력을 갖는다. 상황의 책임소재는 아동이 행위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해 인식하고 응보성의 규범을 이해하는 등 어느 정도 향상된 인지능력을 기반으로 할 때

보다 중요시되는 단서일 것이다. 친사회적 의사결정에서 9세아에서만 상황의 책임소재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점은 5세 유아가 실제 상황에서 책임소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한다. 아동은 제3자가 주인공인 가상적 상황에서보다는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실제 상황에서 행위의 실현가능성을 더욱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따라서 수혜자의 잘못 유무와 같은 조건보다는 과제의 부담과 같이 행위의 실천과 관련된 현실적인 조건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과제의 부담은 어린 아동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Lourenco, 1990, 1993), 5세 유아가 상황의 의도 단서를 민감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과 결부되어 친사회적 의사결정에서 상황의 책임소재를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측정도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친사회적 도덕추론 조사에서는 상황의 단서들이 그림과 함께 제시되고 친사회적 의사결정 조사에서는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언어로 제시되었으므로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 유아에게는 친사회적 도덕추론에서 상황 단서들이 더 명료하게 지각되었을 수 있다. 도덕추론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어린 아동이 의도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를 비디오나 그림으로 제시하거나 그림 속에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3세에서 5세 정도의 어린 아동들도 의도정보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김시은·정영숙, 2000; Imamoglu, 1975; Nelson, 1980). Piaget의 도덕추론 과제는 의도와 결과라는 두 가지 상황단서로 구성되지만 본 연구의 과제는 세 가지 상황단서가 조합되므로 유아에게는 더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제한된 인지능력

을 가진 전조작기 유아의 의도 단서 활용은 다른 조건들보다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는 의도 단서가 제시되는 방법과도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연령 증가에 따라 아동이 상황조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은 타인의 요구나 상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더 많이 돕는 경향을 증가시키는 반면, 상대적으로 모르는 타인이나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도움은 그러한 인지능력의 발달과 병행하여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가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수준이 높을수록 5세 유아는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한다. 더 높은 도덕추론 단계의 부모는 더 낮은 도덕추론 단계의 부모보다 도덕적 전달과 민주적 가족 의사결정을 더 사용하며(Speicher, 1994), 아동이 도덕적 논의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Parikh, 1980), 가족간의 논의에서 더 지지적이고, 공유적이며 도전적(Powers, 1983)인 경향이 있으므로 유아가 타인을 돕는 경향을 촉진시킬 수 있다. 즉 친사회적 도덕추론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친사회적 발달을 고양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역할수용 기회를 제공하는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사회학습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어머니가 자신의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크고 작은 도덕적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패턴은 어머니의 언어나 행동을 통해 유아에게 노출됨으로써 유아가 생활 속에서 남을 돕는 경향을 발달시키는 데 주요한 친사회적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추론은 주로 수혜자와의 관계가 가깝고 과제의 부담이 작을 때, 수혜자와 관계가

멀더라도 과제의 부담이 작고 외적 책임일 때와 같이 유아가 흔히 접하게 되는 일상적 상황 즉 그다지 비용이 크지 않은 도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타인을 돕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상황들에서의 돕기는 유아에게 도덕적으로 많은 고려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나,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며 자신의 친사회적 경향을 발달시켜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유아의 도덕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는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영향력이 5세 유아의 일상적인 도덕성에서 드러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유아의 친사회적 발달에 대한 중요한 환경으로서 어머니의 영향을 재확인시켜준다. 또한 유아의 친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이 단순한 양육실제 이전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한다. 부모의 도덕성은 자녀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도덕성을 형성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영향을 미치므로,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은 한국사회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시작하는 하나의 출발점으로 고려될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한편, 9세 아동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은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수준과 관계가 없었다. 이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어린 연령일수록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 즉 아동 증기에 이르면 또래환경의 비중이 매우 커져서 그 이전 시기에 비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2배로 급증하며, 깨어있는 시간의 40%를 또래와 보내게 된다(Cole & Cole, 1993). 더욱이 이 시기의 중류층 아동들은 경쟁적인 학교 환경 속에서 성취에 대한 압력과 학업 관련 활동의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동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도덕성을 노출하거나 타인을 돕는 일

을 격려 또는 강조함으로써 아동의 친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9세 아동의 친사회적 의사결정에는 또래환경을 비롯한 더 복잡한 변수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영향력은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과제의 반복측정 문제로 인하여 실제 수행이 아닌 친사회적 의사결정을 측정하였고, 아동의 친사회적 발달과 관련된 양육환경의 측면으로서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학문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전조작기 아동이 도덕판단에서 결과 단서와 복합된 의도 단서를 제대로 지각하고 활용할 수 없다는 Piaget의 견해에 대해 후속 연구자들의 반론이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전조작기 유아도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의사결정에서 상황 단서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경향이 9세 아동에게서 보다 발달된 양상으로 나타남을 밝힘으로써 친사회적 도덕판단의 기초가 되는 아동의 상황단서 인지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성인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에 대한 국내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과제의 상황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을 조사함으로써 아동과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친사회적 도덕판단이 상황적 요인의 지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동일한 맥락 내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상황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던 데 대해, 상황적 요인들을 하나의 상황 속에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상황요인이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의

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양육행동이나 태도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어머니의 친사회적 도덕추론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서 자녀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및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을 탐색함으로써, 자녀의 친사회성 발달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환경으로서 어머니의 영향력을 밝혔다.

둘째, 이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상황적 요인들을 하나의 상황 속에서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과제를 사용하였고, 3-4개의 과제들로 측정해 오던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벗어나 24개의 상황에서의 친사회

적 도덕추론과 8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측정함으로써 이 변수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또한 한국 아동과 어머니의 생활경험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과제를 구성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용적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도덕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나 교사, 나아가 사회 차원에서 아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아동의 친사회적 발달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친사회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부모의 양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권민균, 정옥분(1988). 슬픔과 기쁨, 그 정서의 소재 유형이 중학생의 이타행동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9(2), 96-117.
- 김시은, 정영숙(2000). 도덕판단에서 취학전 아동의 의도 사용과 의도성 구분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49-64.
- 김종경(1991). 아동의 감정이입 발달과 친사회적 도덕추론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경원(1986). 아동의 이타행동의 발달과 역할수행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길연(1981). 아동의 조력행동에 미치는 공감변인과 투자변인의 효과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옥경, 이순형(1996). 과제의 종류와 부담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17(1), 275-288.
- 이현남(1992). 도움의 이원성.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현희(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윤정(1998). 그림동화책 읽어주기와 토의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추론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혜선(1993). 아동의 우정관계 유형과 보상조건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ar-Tal, D.(1982). Sequential development of helping behavior : A cognitive-learning approach. *Developmental Review*, 2, 101-124.
- Berkowitz, L.(1969). Resistance to improper dependency relationships. *J. of Experimental Psychology*, 5, 283-294.
- Berkowitz, M. W., Gibbs, J. C., & Broughton, J. M. (1980). The relation of moral judgement stage

- disparity to developmental effects of peer dialogue. *Merrill-Palmer Quarterly*, 26, 341-357.
- Berndt, T. J.(1981). Effects of friendship on prosocial intentions and behavior. *Child Development*, 52, 636-643.
- Birch, L. L., & Billman, J.(1986). Preschool children's food sharing with friends and acquaintances, *Child Development*, 57, 387-395.
- Cho, E. J.(1992). *The role of perspective-taking and empathy in preschoolers' prosocial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Cole, M., & Cole, S.(1993). *The development of children*. (2nd ed.). N. Y. : Freeman and Company. 516-535.
- Damon, W.(1988). *The moral child : Nurturing children's natural moral growth*. N. Y. : The Free Press.
- Dunton, K. J.(1989). *Parental practices associated with their children's moral reasoning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Eisenberg, N.(1982).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 Y. : Academic Press.
- _____ & Fabes, R. A.(1998). Prosocial development. In W. Damon & N. Eisenberg(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Vol. 3) :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5th ed.)(pp. 707-777). N. Y. : Wiley & Sons, Inc
- _____, Miller, P. A., Shell, R., McNally, S., & Shea, C.(1991). Prosoci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7, 849-857.
- _____, Shell, R., Lennon, R., Beller, R., & Mathy, M.(1987). Prosocial development in middle childhood :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3, 712-718.
- Eisenberg-Berg, N.(1979). Development of children's prosocial moral judg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5, 128-137.
- _____ & Hand, M.(1979). The relationship of preschoolers' reasoning about prosocial moral conflicts to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0, 356-363.
- _____ & Neal, C.(1981). Effects of identity of the story character and cost of helping in children's moral judg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 17-23.
- Farver, J. A., & Branstetter, W. H.(1994). Preschoolers' prosocial responses to their peers'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334-341.
- Green, F. P., & Schneider, F. W.(1974). Age difference in the behavior of boys in three measures of altruism. *Child Development*, 45, 248-251.
- Gross, A. E., Wallston, B. S., & Piliavin, I. M.(1975). Beneficiary attractiveness and cost as determinants of responses to routine requests for help. *Sociometry*, 38, 131-140.
- Haan, N., Langer, J., & Kohlberg, L.(1976). Family patterns of mo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47, 1204-1206.
- Helwig, C. G., Hildebrandt, C., & Turiel, E.(1995). Children's judgement about psychological harm in social context. *Child Development*, 66, 1680-1693.
- Hornstein, H. A.(1976). *Cruelty and kindness : A new look at aggression and altruism*.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Howes, C., & Farver, J.(1987). Toddlers' responses to the distress of their peers. *J.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8, 441-452.
- Iannotti, R. J.(1985). Naturalistic and structured assessment of prosocial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 the influence of empathy and perspective-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6-55.
- Ickes, W., & Kidd, R. F.(1976).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helping behavior. In J. H. Harvey, W. Ickes, & R. Kidd (Eds.),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al research (Vol. 1)*. Hillsdale, NJ : Erlbaum.

- Imamoglu, E. O.(1975). Children's awareness and usage of intention cues. *Child Development*, 46, 39-45.
- Jones, D. C.(1985). Persuasive appeals and responses to appeals among friends and acquaintances. *Child Development*, 56, 757-763.
- Kohlberg, L.(1969). Stage and sequence :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 A.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 Land McNally.
- Krebs, D.(1975). Empathy and altruism.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134-1146.
- Lourenco, O. M. (1990). From cost-perception to gain-construction : Toward a Piagetian explanation of the development of altruism in children. *International J. of Behavior Development*, 119-132.
- _____ (1993). Toward a Piagetian explanation of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 The force of negational thinking. *British J.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1, 91-106.
- Meyer, J. P., & Mulherin, A.(1980). From attribution to helping : An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s of affect and expectancy.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201-210.
- Mussen, P. H., & Eisenberg, N.(1977). *Caring, sharing, and helping :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San Francisco : Freeman.
- Nelson, S. A.(1980). Factors influencing young children's motives and outcomes as moral criteria. *Child Development*, 51, 823-829.
- Parikh, B.(1980). Development of moral judgement and its relation to family environmental factors in Indian and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51, 1030-1039.
- Piaget, J.(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 Y. : Free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32)
- Piliavin, L. M., Piliavin, J. A., & Rodin, J.(1975). Costs, diffusion and the stigmatized victim.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429-438.
- Powers, S. I.(1983). *Family interaction and parental moral judgement as a context for adolescent moral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Roberts, W., & Strayer, J.(1996). Empath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449-470.
- Shoffeitt, P. G.(1971). *The moral development of children as a function of parental moral judgement and child-rearing practice*. Doctoral dissertation,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 Speicher, B.(1994). Family patterns of moral judgement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30, 624-632.
- Stanhope, L., Bell, R. Q., & Parker-Cohen, N. Y. (1987). Temperament and helping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347-353.
- Tietjen, A. M.(1986). Prosocial reasoning among children and adults in a Papua New Guinea society. *Developmental Psychology*, 22, 861-868.
- Underwood, B., & Moore, B. S. (1982). Perspective-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 143-173.
- Vygotsy, L. S.(1987). *The Collected works of L. S. Vygotsy*, I. N. Y. : Plenum.
- Walker, L. J., & Taylor, J. H.(1991). Family interactions and the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62, 264-283.
- Weiner, B.(1980). A cognitive (attribution)-emotion-action model of motivated behavior : An analysis of judgements of help-giving.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86-200.
- Weyant, J. M.(1978). Effects of mood states, costs, and benefits on helping.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169-1176.